

大事業體와 財閥事業體의 成長과 生産性

李 在 亨
劉 承 旻

本 研究는 “經濟成長이 財閥과 大企業에 의한 集中現象을 심화시켰는가?” 및 “財閥은 과연 非效率의인가?”라는 두가지 의문에 대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經驗的 證據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大事業體 혹은 財閥部門이 차지하는 相對的 比重의 하락추세는 高成長期에 더욱 가속되므로 高成長을 지속시키는 것이 生産集中을 治癒하는 有效한 方案이라는 시사점과, 둘째 財閥事業體가 非財閥事業體보다 평균적으로는 生産性이 높지만 生産性隔差의 細細分類産業別 分布는 U字型을 나타내어 비재벌사업체의 生産성이 훨씬 높은 例外産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非效率을 근거로 재벌의 企業活動을 規制하는 정책은 오히려 效率에 逆行할 뿐만 아니라 效率性을 이유로 재벌규제를 一般化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경제의 財閥構造와 經濟力集中 등의 현상을 막연히 非效率 次元에서 접근하려던 일부의 시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財閥政策의 目標가 再定立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 序 : 效率性, 生産性, 收益性, 競爭力

“우리나라 財閥企業들은 과연 效率의인가?” 이 짧은 의문은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

와 정책담당자를 괴롭혀 왔던 것이면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財閥構造를 문제시하는 시각에 따르면 재벌의 ‘過度한 業種多邊化와 所有集中’이 財閥企業의 效率性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업종다변화와 소유 집중이 진정 재벌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지에 대하여 논리적·경험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소위 財閥政策은 效率에 逆行할 위험을 내포하는 셈이다.

재벌기업의 효율성 이슈를 財閥의 특징적

筆者 : 李在亨 - 本院 專門研究員
劉承旻 - 本院 研究委員

* 筆者들은 本 論文의 草稿를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本院의 李宗勳·申光湜 박사, 통계분석 및 원고정리를 도와준 金承鎭 연구원, 任贊順 연구조원께 감사드립니다. 本 論文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필자들의 책임이다.

인 事業構造(多邊化) 및 所有·支配·經營構造로써 설명하려는 시도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한편, 재벌기업의 효율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비재벌기업과 비교하려는 시도는 최근 수년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하 Ⅱ章의 문헌서베이에서 소개될 이러한 연구들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효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결국 효율성이 아닌 것을 효율성이라고 말하는愚를 범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效率性의 概念을 규명하고 관련개념인 생산성, 수익성, 경쟁력의 개념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效率性(efficiency)은 경제학에서 여러 이름을 갖는데, 배분효율성, 생산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가격효율성, X-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등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¹⁾ 효율성의 여러가지 개념들은 우선 그 개념이 적용되는單位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상이한 이름을 갖는다.²⁾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巨視的單位를 중요시하는 반면, 여타의 효율성 개념은 실제로 생산활동이 전개되는 工場 혹은 企業單位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공장 혹은 기업단위의 생산활동에 적용되는 효율성이란 生産函數

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經濟理論은 모든 생산자가 주어진 요소가격하에서 生産要素를 最適結合하며, 비용제약하에서 生産量을 極大化하거나 혹은 일정한 생산량의 실현에 소요되는 費用을 最小化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함수에 나타나는 비효율은 이론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즉 생산함수는 그 자체가 일정량의 生産要素를 사용하여 '最大의 可能한' 產出量을 만들어 내는 함수관계로 정의될 뿐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통에 따라 공장 혹은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효율성에 대한 經驗的 研究도 등한시되었다.

그나마 기술적 효율성, X-효율성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생산함수가 이론적 정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效率性의 개념을 체계화하였다. 기술적 효율성은 Farrell(1957)의 선구적 연구 이후 발전된 개념으로서, Farrell은 기업 혹은 공장단위의 생산에 있어서 技術的 非效率性和 要素價格非效率性을 구분하였다. 요소가격비효율성은 生産要素의 상대가격이 주어졌을 때 요소결합의 선택과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각 生産要素의 한계생산을 해당요소가격으로 나눈 값이 요소간에 상이할 경우 발생한다. 반면에 기술적 비효율은 주어진 투입량으로써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효율성에 대한 외국문헌의 연구를 종합하면, 결국 기술적 비효율성이나 이를 요소가격비효율성과 결합한 總體的 非效率性 등은 Leibenstein

1) 이 부분의 논의는 劉承旻·李仁燦(1990), 崔鍾元(1994) 등을 참조.

2) Forsund and Hjalmarsson(1974)은 효율성이 적용되는 차원을 巨視的次元(macro level), 産業次元(industry level), 微視的次元(micro level)으로 분류하고 있다.

(1966)의 X-비효율성에 해당한다.³⁾ 한편 생산비효율성은 비용비효율성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서 최소생산비용의 기준을 장기평균비용곡선으로 볼 때 그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이다. Siegfried and Wheeler(1981)에 의하면 생산비효율성은 X-非效率性, 過小規模의 非效率性, 過大規模의 非效率性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기술적 비효율성이나 X-비효율성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생산의 규모와 관련된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효율성 개념이 발전하여 왔지만, 이 개념들은 모두 기업 혹은 공장단위의 생산에서 投入-產出이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초점을 맞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험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이론적 생산함수의 경험적 대칭에 해당하는 境界生

產函數(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주어진 관측치로부터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決定的 境界를 가정하느냐, 確率的 境界를 가정하느냐, 혹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와 같은 프로그래밍모형을 이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⁴⁾ 경험적으로 효율성(특히 기술적 효율성)이란 복원된 생산경계와 실제의 관측치들이 투입-산출공간에서 상호간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느냐에 의하여 추정된다.

우리나라 財閥의 效率性を 분석하는 것은 결국 財閥 系列企業 혹은 系列事業體의 效率性を 分析하는 것인데, 효율성을 제대로 추정하려면 결국 일정한 산업내의 모든 공장(사업체) 혹은 기업의 투입-산출 통계로부터 경계생산함수를 복원한 다음, 이 산업에 속한 재벌 계열기업 혹은 계열사업체들의 관측치가 추정된 경계생산함수로부터 얼마나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확률적 경계생산함수를 추정한 기존의 경험적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방법은 技術的 效率性的 產業平均値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限界를 가질 뿐 아니라, 추정된 효율성의 산업평균치 자체도 動態的으로 심각한 不安定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계량분석기법이 위에서 소개한 효율성 개념을 무난히 추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⁵⁾ 한편 DEA기법은 확률적 경계생산함수가 갖는 이러한 問題點을 상당히 극복한 推定方法으로 평가되

3) Leibenstein(1966)의 X-비효율성은 Leibenstein(1978) 자신이 밝히듯이 노동자들의 고용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勤勞強度 및 勤勞時間에 대한 自由裁量, 현실기업에서의 動機賦與體系의 非效率性, 競爭壓力의 不在 등에 기인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X-비효율성은 기술적 비효율성 혹은 총체적 비효율성과 동일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4) 생산경계의 추정에 사용되는 상이한 模型과 推定方法에 대해서는 *Journal of Econometrics*, Vol.46, 1990(Supplement)을 참조할 것.

5) 確率的 境界生産函數를 이용한 기술적 효율성의 추정은 Caves and Barton(1990), 劉承旻·李仁燦(1990), Caves(1992) 등을 참조할 것. 產業의 平均效率性 推定値의 동태적 불안정성에 대한 증거와 분석은 劉承旻(1990)을 참조.

지만, 이 또한 실제 통계에 근거한 경계생산함수의 복원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사한 방법이며, 결국 실제 관측치들이 투입-산출공간에서 어떠한 分布를 갖느냐를 관찰하는 것에 불과하다.⁶⁾ 이와 같이 기존의 효율성 추정방법을 동원할 때 生産境界推定の 信賴性이 결여된다면 재벌 계열기업 혹은 계열사업체의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직접 구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점은 효율성이 어차피 투입-산출공간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生産性(productivity)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이다. 생산성은 勞動, 資本 등 생산요소의 投入單位當 產出로서 계산되므로, 효율성개념에서 ‘境界’ 및 ‘境界와의 距離’라는 요소를 排除하고 관측치의 높이만을 보는 개념이 바로 생산성인 것이다. 실제로 효율성에 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 1人當 出荷額 혹은 1人當 附加價値와 같은 생산성지표는 그 자체가 경계생산함수의 추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生産性指標의 分析이 결국 效率性의 分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한다. 재벌 계열기업 혹은 계열사업체의 비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직접적인 효율성 분석이 위와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信賴性이 결여된다면, 생산성 분석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는 生産性 分析을 등한시하고 收益性(profitability) 分析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익성 또한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지만, 개별기업의 수익성이란 시장여건, 가격정책, 시장점유율, 비용구조 등 需要와 供給을 결정하는 市場特性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事前的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약하다.

한편 競爭力(competitiveness)이란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 중 한가지 지표로 평가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에서 優位를 점할 수 있는 綜合的 生存能力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결국 기업이 주어진 외부환경하에서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有形, 無形의 資產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動態的으로 경쟁력은 企業이 核心的 經營資源을 축적해 가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事後的으로 실현되는 시장점유율을 제외한다면 경쟁력을 평가하는 단순한 지표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財閥企業들이 효율적, 비효율적이라는 피상적 주장은 대부분 效率性이 생산성, 수익성, 나아가서는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효율성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확대하면 할수록 효율성에 대한

6) DEA기법의 응용사례는 孫承泰(1993), 孔柄溟·金恩慈(1993) 등을 참조할 것.

신뢰할 만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연구과제가 될 뿐이다.

II. 既存文獻의 考察과 本研究의 意義

1. 既存研究의 寄與와 限界

소위 財閥의 效率性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 중에서 I章에서 소개한 효율성의 의미에 따라 投入-產出 統計로부터 境界生産函數를 추정하고, 財閥과 非財閥의 相對的 效率性 隔差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효율성 연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財務資料를 이용하여 수익성의 상대적 격차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趙東成(1990), 金仁中(1992), 洪賢杓(1992) 등의 연구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收益性 指標를 기초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趙東成(1990)은 50대 재벌계열사의 收益性, 生産性, 安定性 比率을 「企業經營分析」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그러나 金仁中(1992)은 수익성지표가 集中度, 輸出比率, 企業集團더미 등의 변수와 갖는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30대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증거를 도출하였다. 洪賢杓(1992)은 수

익성지표가 規模, 負債比率, 所有集中度, 成長率, 市場集中度, 企業集團더미 등의 변수와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상장기업만을 볼 때 재벌계열사의 수익성은 낮았으나 상장기업과 34개 재벌기업을 합한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收益性指標에 관한 한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격차는 표본과 통계출처에 따라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기업이 과도한 業種多邊化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낮다는 주장은 아직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들은 수익성의 격차를 설명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앞서 지적했듯이 이를 생산의 효율성과 연관시킬 수는 없다.

이 밖에도 鄭求鉉(1991), 鮮于奭皓·梁元根(1991) 등은 財閥의 多邊化類型이 經營成果에 대하여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으며, 대체로 다변화 정도가 높을수록 收益性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姜信逸(1991)의 경우에는 수익성지표가 산업 혹은 기업의 특성인 集中度, 成長率, 多邊化 程度, 上場企業比重 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추정한 결과 다변화 정도가 높을수록 수익성도 높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재벌과 비재벌의 효율성 격차를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多邊化와 收益性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반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다변화가 수

익성을 과연 저해하느냐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비교연구 중 孔柄濬·金恩慈(1993)는 효율성의 개념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投入-產出 統計를 DEA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한 결과, 총 34개의 세분류업종 중에서 재벌기업이 효율적인 업종이 24개, 비재벌기업이 효율적인 업종이 7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3개로서 결국 평균적으로 財閥企業이 더욱 效率的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企業單位의 財務資料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장단위의 효율성과는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 효율성 추정치의 動態의 不安定性은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상 살펴본 기존문헌은 재벌이라는 企業組織이 갖는 효율성에 대하여 최근 수년간 나름대로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된 결과이지만, 아직도 재벌기업이 효율적인가를 답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재벌과 비재벌의 收益性 隔差,

多邊化 程度와 收益性的 相關關係에 치중한 나머지, 수익성의 연구에 머물렀고 효율성의 연구라고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수익성의 차원에서도 기존의 연구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지지하지 않고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재벌과 비재벌의 수익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다변화가 수익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경험적 증거가 어떠한 가설을 분명히 지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기존문헌은 대부분 上場企業의 財務資料를 사용한 나머지 상장기업이라는 표본이 가지는 標本抽出偏倚(sampling bias)의 문제를 가지며,⁷⁾ 투입-산출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라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는 比較分析 對象產業의 範圍를 지나치게 넓게 함으로써 산업간의 차이점 때문에 어떠한 지표의 비교이든 과연 그러한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다.

7) 上場企業으로만 구성된 標本이 갖는 偏倚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상장기업은 企業公開條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구조를 가질 것이므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非上場企業을 모두 포함시킨 표본에 비하여 수익성의 上向偏倚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偏倚의 정도는 재벌과 비재벌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재벌과 비재벌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상장기업통계가 갖는 편익은 수익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2. 本 研究의 意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내에서 財閥事業體의 相對的인 成長과 生産性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생산성에 있어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관측단위는 기업이 아니라 工場이며, 주된 비교기준은 효율성이 아니라 生産性이다. 필자들이 효율성 대신 생산성을 측

정하는 이유는 기존문헌의 효율성 척도들이 Farrell(1957)의 개념적 기초 위에 매우 정교한 計量技法을 동원하여 추정되는 것이지만, 劉承晷(199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그 추정치의 動態的 不安定性이 심각하여 推定値의 信賴性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효율성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生産性 指標를 단순히 분석함으로써, 효율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큰 경험적 증거를 도출하는 한편, 대부분의 연구가 주목하였던 수익성과는 상이한 차원의 증거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財閥과 非財閥 事業體의 投入-產出關聯 統計를 사용하고자 하며, 필자들은 투입-산출에 관한 한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인 鑛工業統計의 製造業部門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재무자료의 한계와 상장기업표본의 문제점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의 비교가 산업의 차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비교기준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재벌과 비재벌 사업체의 생산성 비교에 앞서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製造業成長의 몇가지 構造的 特徵을 살펴보고, 大企業과 財閥의 성장을 製造業 全體의 성장과 比較·分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오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相對的 位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成長이 一般集中이나 企業集團集中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귀중한 經驗的 證據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엄밀한 의미의 효율성 연구가 아니라는 限界를 갖지만, 제조업내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상대적 위상변화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제조업의 全數調查統計를 이용함으로써 표본을 개선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生産性이라는 投入-產出關係를 파악한 측면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는 寄與를 갖는다. 필자들은 재벌 혹은 대기업에 대한 최근의 논쟁 중에서 經驗的 證據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假說에 불과한 주장이 많이 제기됨을 체험하였다. 본 연구는 製造業의 構造變化와 財閥事業體의 生産性에 대한 부분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製造業의 成長과 大事業體, 財閥事業體의 位相 變化

1. 製造業 成長과 大事業體의 位相 變化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각년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규모는 <表 1>에서와 같이 성장하였는데, 製造業成長의 構造的 變化와 主要指標의 成長率을 보면 <表 2>, <表 3>과 같다. 우선 事業體數는 1970~92년

〈表 1〉 製造業 概觀

(단위 : 개, 10億원, 千명)

	1970	1975	1980	1985	1988	1990	1992
事業體數	24,114	22,787	30,823	44,037	59,928	68,872	74,679
出荷額(經常)	1,307	7,994	36,277	76,486	133,080	175,234	224,599
出荷額(實質) ¹⁾	7,599	22,774	46,330	76,486	124,957	155,349	179,392
從業員數	861	1,420	2,015	2,438	3,120	3,020	2,801
附加價值	550	2,828	11,857	26,736	48,342	70,925	96,018
有形固定資産	-	-	-	-	46,981	76,216	108,775

註 : 1) 1985년 제조업부문 GNP디플레이터로 환산한 것임.

資料 :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號.

〈表 2〉 製造業의 構造的 變化

	1970	1975	1980	1985	1988	1990	1992
事業體當 從業員數(人)	36.5	62.3	65.4	55.4	52.1	43.8	37.5
大事業體의 數 ¹⁾	708	873	1,044	1,087	1,318	1,193	1,022
· 大事業體比重(사업체수, %)	2.94	3.83	3.39	2.47	2.20	1.73	1.37
· 大事業體比重(출하액, %)	69.5	69.2	66.0	64.7	60.7	57.4	54.3
事業體當 出荷額(백만원)	54	351	1,177	1,737	2,221	2,544	3,008
(小事業體 / 大事業體) × 100(%) ²⁾	1.3	1.8	1.8	1.4	1.2	1.2	1.2
附加價值率(%) ³⁾	42.1	35.4	32.7	35.0	36.3	40.5	42.8
重工業比重(%) ⁴⁾	46.1	51.4	58.8	65.3	67.2	70.5	70.2

註 : 1) 大事業體는 從業員 300人 이상의 事業體.

2) 小事業體, 大事業體는 각각 出荷額의 平均을 의미.

3) 附加價值 / 出荷額.

4) 35, 36, 37, 38産業을 重工業으로 분류.

資料 :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號.

의 20여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出荷額, 附加價值, 有形固定資産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製造業에 종사하는 從業員數는 1988년을 정점으로 그 절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2〉에 나타난 構造的 變化를 보면 製造業은 이 기간중 重工業比重이 46.1%에서 70.2%로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고, 산업 구조고도화에 따라 1980년대 이후 附加價

值率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의 大事業體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事業體數 및 出荷額)은 1975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 3〉에 의하면 우선 제조업의 出荷額增加率(實質)은 5년 단위의 각 기간별로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반영하듯이 1975~80년, 1985~90년의 기간이 여타의 기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高成長을 나타내었다.

〈表 3〉 製造業 主要變數의 增加率¹⁾

(단위 : %)

	1975~80	1980~85	1985~90	1990~92	1975~92
從業員數 增加率	7.2	3.9	4.4	△3.7	4.1
出荷額 增加率(實質)	15.3	10.5	15.2	7.5	12.9
· 事業體數 增加率	6.2	7.4	9.4	4.1	7.2
· 事業體當 出荷額 增加率	8.5	2.9	5.4	3.2	5.3
大事業體 出荷額 增加率	14.2	10.1	12.5	4.6	11.3
· 大事業體數 增加率	3.6	0.8	1.9	△7.4	0.9
· 大事業體當 出荷額 增加率	10.2	9.2	10.4	13.0	10.3

註 : 1) 年平均增加率로서 기준연도간의 복리계산임. 1970년은 아직 광공업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던 기간으로 평가되어 제외함.

資料 :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號.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단순한 사실보다 〈表 2〉와 〈表 3〉의 통계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 제조업내 大事業體와 小事業體의 상대적인 位相變化이다. 우선 〈表 3〉에서 보듯이 제조업전체 및 대사업체부문의 출하증가율은 事業體當 出荷(사업체규모)의 증가율과 事業體數의 증가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업 전체를 본다면 사업체규모보다는 사업체수의 증가가 製造業成長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大事業體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 즉 사업체규모의 성장이 오히려

사업체수의 증가를 훨씬 상회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事業體規模의 成長은 1975~92년의 기간중 연평균 10.3%를 기록한 반면, 事業體數의 증가율은 0.9%에 불과하였다. 〈表 2〉에 나타난 대사업체부문의 상대적 비중 저하와 함께 대·소사업체간 규모격차가 확대된 이유도 여기에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소사업체를 단순히 ‘從業員 300人’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자체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더욱 완만하게 성장하였고 1988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위의 분석기간중 소사업체가 대사업체로 편입된 경우가 흔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적 해석도 가능하지만,⁸⁾ 어쨌든 제조업내 대·小事業體 部門의 成長이 事業體數와 事業體規模의 측면에서 큰 격차를 나타낸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表 4〉는 大事業體部門의 數的 比重과 出

8) 특히 본문 〈表 3〉에서 1990~92년의 기간중에는 제조업전체의 종업원이 3.7%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300人 이상이었던 대사업체 중 상당수를 300人 이하의 小事業體로 전환시켰을 것인데, 실제로 表에서 보듯이 大事業體數는 7.4%나 減少하였다.

〈表 4〉 製造業成長과 大事業體部門의 比重變化

	1975~80	1980~85	1985~90	1990~92
製造業出荷額 增加率(表 3)	15.3%(高)	10.5%(低)	15.2%(高)	7.5%(低)
大事業體部門의 數의 比重 變化(表 2) 年平均	△0.44%p △0.09%p	△0.92%p △0.18%p	△0.74%p △0.15%p	△0.36%p △0.18%p
大事業體部門의 出荷比重 變化(表 2) 年平均	△3.2%p △0.64%p	△1.3%p △0.26%p	△7.3%p △1.46%p	△3.1%p △0.62%p

荷比重이 각 期間別로 製造業全體의 出荷增加率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表 2〉와 〈表 3〉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表 3〉과 〈表 4〉에 제시된 대로 1975~92년 기간을 각각 제조업의 상대적인 “高成長→低成長→高成長→低成長”의 네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사업체부문의 數의 比重은 1980년대 이후 계속 큰 폭으로 減少하였지만, 대사업체부문의 출하액이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高成長期일수록 감소폭이 크고 低成長期에는 오히려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성장기에는 소사업체부문의 출하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저성장기에는 소사업체부문의 출하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은 매우 단순한 관측에 불과하지만, 대사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의 사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成長과 大企業比重의 關係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高成長은 많은 수의 小規模事業體의 新設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산업저변의 확대가 결국 대규모사업체 혹은 대기업의 상대적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막연히 주장되어 왔던 “經濟成長이 大企業 혹은 財閥에 의한 經濟力集中을 深化시킨다”는 假說이 대기업에 관한 한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大規模事業體는 저성장기에도 생존하는 능력이 소규모사업체에 비하여 클 것이므로, 低成長이야말로 相對的 比重으로 측정된 經濟力集中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製造業은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확대보다는 事業體의 新設을 통한 산업저변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특히 小規模事業體에 나타나는 특징일 뿐, 大事業體部門은 오히려 사업체수보다는 事業體規模의 擴大를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한편 대·소사업체부문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동태적 변화는 製造業의 成長速度에 따라 상이한 추세를 보였는데, 대사업체의 비중감소는 저성장기보다 고성장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表 5〉 製造業部門 經濟力集中의 推移(出荷額基準)¹⁾

	1977	1980	1985	1989
5大財閥	15.7%	16.9%	23.3%	21.3%
30大財閥	34.1%	36.0%	40.8%	35.4%
	1977~80	1980~85	1985~89	
比重變化(30大)	1.9%p	4.8%p	△5.4%p	
年平均	0.63%p	0.96%p	△1.35%p	

註: 1) 이 표의 통계는 제조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鑛工業部門 經濟力集中 統計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資料: 統計廳.

2. 製造業 成長과 財閥事業體의 位相 變化

大·小事業體의 區分은 단순히 모든 사업체를 규모로써 구분하는 것일 뿐이므로, 앞서 지적했듯이 고성장, 저성장에 따른 部門間 比重變化에 대하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재벌에 의한 經濟力集中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財閥과 非財閥의 구분은 어떤 사업체 혹은 기업이 財閥이라는 동일한 支配關係下에 있느냐(따라서 系列事業體 혹은 系列企業이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소사업체 구분과 그 기준이 다르며, 어떤 시점의 비재벌사업체가 시간이 경과하면 재벌사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表 4〉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고성장, 저성장과 대·소사업체부문의 위상변화가 재벌, 비재벌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는 없다.

〈表 5〉는 製造業部門의 經濟力集中 推移를 나타내는데, 이미 알려진 대로 제조업부문의 企業集團集中度는 출하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1985년 전후를 정점으로 下向安定化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從業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집단집중도는 1980년대에 걸쳐 계속 하락), 이러한 추세는 5대, 10대, 20대, 30대 재벌의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현상이다.⁹⁾ 그러나 〈表 5〉에서 보듯이 1977~85년 기간중 재벌의 비중이 6.7%포인트나 증가했던 현상은, 앞서 〈表 2〉의 대사업체비중의 하락추세(1975~85년 기간중 4.5%포인트 하락)와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1980~85년의 相對的 低成長期에 대사업체부문은 1.3%포인트 감소한 반면(表 4 참조), 30대 재벌의 비중은 4.8%포인트 증가했다. 따라서 저성장기인 동 기간중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상당히 深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7~85년의 經濟力集中 深化現象을 설명하려면 우선 동 기간중 제조업부문에서

9) 劉承勳(1993) 참조.

재벌의 확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보아야 할 것인데, 1977년 337개이던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수(製造業部門)가 1985년 270개로 감소한 것으로 볼 때 계열기업수 혹은 계열사업체수의 확대보다는 業體當 規模擴大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소사업체의 구분이 아니라 재벌, 비재벌의 구분에서 사업체수와 사업체당 규모에 대한 이러한 피상적인 관측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財閥系列事業體間 支配關係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特定時點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不連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1977~85년의 企業集團集中度變化는 당시 제조업내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던 大韓石油公社(1962년 설립, 1980년 民營化 이후 선경그룹이 소유·지배, 유공으로 상호 변경)의 民營化 및 이에 따른 財閥事業體로의 編入과 같은 支配權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당시만 하더라도 민영화시점을 전후한 유공의 출하액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4.4%, 1980년 5.6%, 1981년 5.6%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30대 재벌에 의한 企業集團集中度는 1979년 이후의 低成長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上昇한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그러나 고성장이 대사업체비중의 하락을 더욱 가속화했듯이 고성장은 財閥에 의한 經濟力集中을 緩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와 같은 재벌구성원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1985~89년의 高成長期에 企業集團集中度가 무려 5.4%포인트 하락한 사실에 의하여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表 5>의 기업집단지중도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필자들은 고성장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통계가 완비되지 않았지만 1990~93년의 저성장기에 기업집단지중도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점은 재확인된다.

IV. 財閥事業體와 非財閥事業體의 生産性 : 1988년

1. 統計資料의 特性

本章에서 우리는 財閥事業體와 非財閥事業體의 生産性を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들이 本章의 분석에서 사용한 통계는 1988년 광공업통계자료 중 제조업의 사업체 통계이며, 각 사업체에 대하여 財閥, 非財閥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事業體의 規模를 구분하였다. 1988년은 우리 경제가 3년째 12%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실현하던 시기이고, Ⅲ章에서 보았던 대로 산업저변이 확대되어 소규모사업체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대사업체부문과 재벌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시

〈表 6〉 1988년 製造業의 一般의 現況

산업분류	세세분류 산업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출하액 (%)	대사 업체 수	대사업체 의 출하 비중(%)	부가 가치 율
31. 음식료품, 담배	64	7.8	7.2	10.2	122	56.5	40.5
32. 섬유, 의복	71	25.6	24.9	14.8	301	46.0	37.6
33. 목재	25	5.7	2.6	1.6	27	38.5	34.6
34. 출판, 인쇄	33	7.1	4.3	4.2	52	37.2	39.2
35. 석유, 석탄, 화학	71	10.9	13.5	19.6	201	64.6	32.5
36. 비금속, 광물제품	38	5.4	3.9	3.8	56	37.2	41.2
37. 제1차금속	33	2.4	3.8	8.8	62	77.6	29.8
38. 기계 및 장비	146	30.5	35.9	35.0	456	69.8	37.3
39. 기타	32	4.6	3.8	2.0	41	31.9	42.2
제조업 전체	513	59,928	3,120 ¹⁾	133,080 ²⁾	1,318	60.7	36.3

註 : 1) 千명 2) 10億원.

資料 : 統計廳.

〈表 7〉 細細分類産業의 規模別分布

	산업수 (누적)	출하액비중 (누적, %)	종업원비중 (누적, %)	부가가치비중 (누적, %)
2조원이상 산업	9	28.5	21.9	24.8
1조원~2조원 미만	28	48.6	39.3	46.4
5천억원~1조원 미만	58	64.2	53.3	61.1
2천억원~5천억원 미만	140	84.3	77.1	82.2
2천억원 미만	513	100.0	100.0	100.0

資料 : 統計廳.

기로서 生産性比較에 적합한 시점으로 판단 되었다.¹⁰⁾

〈表 6〉은 1988년 製造業의 一般적 現況을 9개의 中分類製造業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각 중분류산업은 세세분류산업의 數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事業

體數, 從業員數, 出荷額, 附加價値率이 각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2, 35, 38 산업은 다른 중분류산업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크며, 전체 사업체의 67%, 출하액의 69.4%가 이 산업에 집중되 어 있다. 한편 大事業體의 수와 대사업체의 출하비중 또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32, 35, 38 산업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513개의 세세분류산업은 〈表 7〉에서 보 듯이 규모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5千

10) 그러나 1988년이 景氣가 過熱된 시기였고, 그 만큼 非正常的인 生産活動이 이루어졌을 것인 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不適合한 時點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表 8〉 中分類産業別 財閥系列事業體의 分布

산업분류	세세분류 산업수	재벌참여산 업(A)의 수	A산업		재벌계열 사업체수	A산업내의 재벌계열 사업체의 출하비중
			수적비중(%)	출하비중(%)		
31	64	27	42.2	63.3	60	29.9
32	71	24	33.8	76.6	70	18.2
33	25	5	20.0	64.9	9	19.9
34	33	10	30.3	62.0	16	12.1
35	71	29	40.8	88.2	74	52.5
36	38	13	34.2	81.1	53	33.6
37	33	15	45.5	93.1	37	37.3
38	146	57	39.0	86.3	137	53.7
39	32	4	12.5	29.7	5	16.5
계	513	184	35.9	80.8	461	44.6

資料：統計廳.

〈表 9〉 財閥系列事業體의 規模分布

사업체규모	사업체수			출하액(10억원)		
	제조업(A)	30대재벌(B)	B/A(%)	제조업(C)	30대재벌(D)	D/C(%)
500人 이상	724	204	28.2	68,990	39,567	57.4
300~499	594	68	11.4	11,802	2,743	23.2
200~299	846	50	5.9	8,751	1,388	15.9
199人 이하	57,764	139	0.2	43,538	1,478	3.4

資料：統計廳.

億원 이상의 58개 산업이 제조업 출하액의 64.2%, 종업원의 53.3%, 부가가치의 61.1%를 차지하고 있다.

〈表 8〉은 1988년의 제조업통계에서 財閥系列事業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513개의 세세분류산업 중에서 30대 재벌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184개로서 전체사업수의 36% 정도이나 이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출하액의 비중은 80.8%나 된다. 즉 규모가 큰 산업에는 대부분 재벌사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벌사

업체는 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해 있으면서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비중이 높은 반면, 규모가 작은 산업에서는 출하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表 9〉는 제조업 전체와 30대재벌사업체의 事業體規模別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5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체에서 30대재벌의 계열사업체가 차지하는 수적 비중은 28.2%에 불과하지만 출하액비중은 57.4%로서 상당히 높다. 이들 204개의 재벌사업체가 재벌의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表 10〉 財閥과 非財閥 事業體의 生産性指標 比較

	5대재벌	6~30대재벌	비재벌
사업체당 출하액(10억원)	161.5	67.6	1.5
사업체당 종업원수(인)	1,900	775	44
1인당 출하액(백만원)	85	87	34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6	27	13
1인당 자산(백만원)	29	35	12
1인당 급여(백만원)	6.6	5.7	4.0

資料 : 統計廳.

87.6%로서 압도적이다. 30대재벌의 수적 비중과 출하액비중은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종업원 300인 이하의 소규모 재벌사업체도 461개 중 189개나 되지만 이들이 재벌의 총출하액이나 같은 규모의 사업체의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즉 재벌들은 〈表 8〉, 〈表 9〉에서 보듯이 규모가 큰 산업에 주로 포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규모 계층내에서도 재벌사업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판단된다.

2. 財閥事業體와 非財閥事業體의 生産性 比較

財閥事業體와 非財閥事業體의 生産性은 우선 〈表 10〉에서와 같이 단순비교된다. 앞서 살펴본 재벌과 비재벌의 규모의 차이는 〈表 10〉에서도 사업체당 출하액 및 종업원 규모의 격차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한편 1인당 출하액, 부가가치, 자산 등의 지표는 30대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 사이에 2

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낸다. 즉 모든 사업체를 단순비교할 경우에는 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10〉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5대 재벌과 6~30대 재벌의 차이점이다. 이들은 사업체당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하위재벌의 사업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表 10〉과 같은 재벌, 비재벌의 단순비교는 事業體規模의 差異와 産業의 差異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表 11〉에서는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비교가 의미를 갖는 規模階層의 事業體에 대하여서만 생산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表 9〉에서 보았듯이 재벌사업체의 출하액 중 3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3.7%이므로, 〈表 11〉에서 우리는 500인 이상의 사업체, 300~499인의 사업체에 대하여서만 生産性指標를 비교하고자 한다.

〈表 11〉에서 우선 재벌사업체만을 본

〈表 11〉 事業體規模別 生産性指標 比較

		5대재벌	6~30대재벌	비재벌
500인 이상 사업체	사업체당 출하액(10억원)	258	147	57
	1인당 출하액(백만원)	83	83	48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6	26	19
	1인당 자산(백만원)	29	34	19
	1인당 급여(백만원)	6.7	5.7	5.0
300~499인 의 사업체	사업체당 출하액(10억원)	143	34	17
	1인당 출하액(백만원)	83	85	45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6	27	15
	1인당 자산(백만원)	34	35	13
	1인당 급여(백만원)	5.8	6.0	4.6

資料：統計廳.

다면 上位財閥이든 中下位財閥이든 규모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격차가 거의 없으므로 나타나지만, 재벌사업체를 비재벌사업체와 비교할 경우에는 생산성지표의 격차가 〈表 10〉의 全體標本調査에서와 유사하게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규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였으나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의 生産性 隔差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表 11〉의 사업체당 출하액, 1인당 자산 등의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도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을 결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500인 이상이든 300~499인의 규모이든 재벌사업체는 비재벌사업체와 비교할 때 사업체당 출하액이 훨씬 크며, 1인당 자산 또한 훨씬 크다. 따라서 財閥事業體의 경우 資本集約的 産業에, 非財閥事業體의 경우 勞動集約的 産業에 있기 때문에 人當 生産性指標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은 상위재벌과 중하위재벌의 사업체 생산성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表 11〉의 規模別 事業體標本에서 상위재벌과 중하위재벌의 사업체당 출하액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1인당 자산은 대동소이하며, 이에 따라 결국 1인당 출하액과 부가가치 또한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오히려 300~499인의 사업체 규모에서는 중하위재벌 사업체의 1人當 出荷額, 附加價值, 資産, 給與가 상위재벌 사업체에 비하여 모두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흥미롭다.

〈表 10〉, 〈表 11〉의 비교가 결국 산업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고, 事業體의 生産性 比較란 결국 機械裝備率, 生産技術, 産業別 景氣 등의 산업간 차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表 12〉에서는 각종 지표를 비교함에 있어서 우선 〈表 11〉과 같이

〈表 12〉 (非財閥÷財閥) 生産性指數의 細細分類産業數 分布¹⁾(재벌사업체평균 = 100)

비재벌사업체 평균 =		50 이하	50~ 70	70~ 90	90~ 100	소 계	100~ 110	110~ 130	130~ 150	150 이상	소 계
500人以上 사업체 (68개산업)	1인당 출하액	13	12	15	2	42	2	9	6	9	26
	1인당 부가가치	16	10	11	6	43	2	4	4	15	25
	1인당 자산	27	13	4	6	50	2	4	1	11	18
300~499 인의 사업 체 (34개 산업)	1인당 출하액	10	5	5	2	22	2	2	3	5	12
	1인당 부가가치	6	8	6	0	20	3	2	3	6	14
	1인당 자산	13	7	2	1	23	0	5	0	6	11
200~299 인의 사업 체 (31개 산업)	1인당 출하액	9	4	5	2	20	1	2	2	6	11
	1인당 부가가치	9	5	3	1	18	1	3	2	7	13
	1인당 자산	9	3	7	1	20	0	2	1	8	11

註: 1) 표의 수치는 우선 규모계층별로 각 세세분류산업내에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가 모두 존재함으로써 비교가 가능하고, 재벌사업체의 평균을 100이라 할 때 비재벌사업체의 평균을 지수화하여 각 구간에 속하는 세세분류산업의 수를 계산한 것임.

資料: 統計廳.

사업체규모의 계층별로 표본을 선정하되 재벌사업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비재벌사업체의 평균이 表의 각 구간에 있는 細細分類産業의 數를 나타내고 있다. 〈表 12〉에서 보듯이 이러한 비교는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68개 細細分類産業에 대하여만 가능하였고, 300~499인, 200~299인의 규모계층에 대해서는 각각 34개 산업, 31개 산업만이 비교가능하였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統計編輯過程을 거친 〈表 12〉는 결국 財閥과 非財閥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細細分類産業에서 규모가 비슷한 사업체들을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재벌과 비재벌 중 누구의 生産性이 더욱 높은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規模와 細細分類産業의 差異를 감

안한 결과는 상당히 示唆的이다. 〈表 12〉에서 단순히 100 이하와 100 이상의 산업수로만 본다면 재벌사업체들의 1인당 출하액, 부가가치, 자산이 비재벌사업체에 비하여 큰(즉, 100 이하) 세세분류산업이 훨씬 많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사업체규모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재벌사업체의 生産성은 비재벌사업체에 비하여 높다는 〈表 10〉, 〈表 11〉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平均的인 觀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산업에 따라서는 비재벌사업체의 生産성이 훨씬 높은 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表 12〉에서 指數化된 平均生産性 差異의 産業數分布는 正規分布와 유사한 ‘∩字型’이기보다는 그 반대인

‘U字型’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벌과 비재벌의 생산성 격차가 별로 없는 산업(表的 90~100, 100~110의 구간)보다는 생산성 격차가 큰 산업의 수가 훨씬 많고, 많은 수의 산업이 50 이하 혹은 150 이상의 구간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즉 제조업 전체로서는 財閥事業體가 非財閥事業體보다 생산성이 높지만, 그 정반대 경우에 해당하는 세세분류산업도 상당수 존재하며, 특히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세세분류산업이 標本內에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事業體 生産性 決定要因의 回歸分析

〈表 12〉는 비록 단순한 要約統計值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事業體規模와 細細分類産業別 差異를 감안하여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 격차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長點을 가졌다. 이러한 장점은 通常의 回歸分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회귀분석 또한 諸變數의 相關關係를 평균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므로, 本節에서는 生産性的 決定要因에 관한 回歸分析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물론 재벌, 비재벌의 더미변수는 설명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회귀분석의 標本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

11) 200인 이상 사업체 중 非財閥事業體는 1,842개였는데 각 規模階層別 平均値를 回歸分析의 觀測値로 사용함에 따라 이는 588개의 관측치로 줄었다.

는 제조업의 모든 사업체를 총동원하기보다는, 의미있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우선 〈表 12〉에서와 같이 200인 이하의 사업체를 모두 제외하였고, 30대 재벌사업체의 경우에는 각 사업체를 관측치로 사용하되, 비재벌사업체의 경우에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세세분류산업별로 事業體規模階層을 2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의 3개로 나누어 각 규모계층별 평균값을 관측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세세분류산업에 있어서 재벌사업체는 바로 그 數만큼, 비재벌사업체는 3개 혹은 그 이하의 관측치가 표본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편집된 통계는 제조업전체가 910개의 觀測値로 標本이 구성되고 그 중 財閥事業體는 322개이다.¹¹⁾ 이러한 통계편집과정을 거쳐서 회귀분석에 사용된 관측치의 규모별, 중분류산업별 분포는 〈表 13〉에 나타나 있다.

〈表 13〉의 표본은 재벌과 비재벌의 생산성 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 標本抽出偏倚의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우선 이 표본은 전체 제조업의 모든 세세분류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벌사업체는 322개가 모두 포함되었고 非財閥事業體는 각 산업에서 規模別 平均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200인 이상의 사업체의 投入-產出關係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14〉는 全體標本 및 이를 규모계층별로 구분한 3개의 下位標本에 대하여, 사업

〈表 13〉 標本事業體의 規模別, 中分類産業別 分布¹⁾(사업체수)

산 업	사업체 규모			계
	200~299人	300~499人	500人 이상	
31	38(11)	31(9)	36(14)	105(34)
32	44(6)	42(9)	61(36)	147(51)
33	3(0)	6(1)	8(5)	17(6)
34	23(3)	12(3)	13(2)	48(8)
35	39(10)	30(10)	50(31)	119(51)
36	20(3)	17(5)	23(13)	60(21)
37	18(3)	21(11)	29(19)	68(33)
38	94(14)	78(20)	141(82)	313(116)
39	12(0)	9(0)	12(2)	33(2)
계	291(50)	246(68)	373(204)	910(322)

註: 1) () 안의 숫자는 財閥系列事業體數임.

資料: 統計廳.

체별 1인당 출하액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설명변수로는 30大財閥더미, 從業員數(事業體規模), 該當細細分類産業의 허핀달指數(産業集中度), 1人當 有形固定資産, 輸出比重, 1人當 給與額 등이 동원되었다. 물론 이들 설명변수가 1인당 출하액과 경험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가 관심의 초점이었으며, 이론적으로 엄밀한 가설이 반드시 事前的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¹²⁾ 이 밖에도 사업체별 R&D集約도와 같은 설명변수를 고려하였지만, 회귀분석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체단위에서 보고되는 R&D 통계

의 신뢰성결여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表 14〉의 회귀분석결과는 몇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벌사업체의 1인당 출하액은 비재벌사업체에 비하여 높고, 이 관계는 전체표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계층별 표본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의하다. 이 결과는 〈表 10〉, 〈表 11〉, 〈表 12〉의 발견을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앞서 〈表 12〉에서 확인한 U字型分布는 이러한 회귀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체규모(종업원수)는 오히려 1인당 출하액에 대하여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表 11〉에서도 일부 확인되듯이 종업원수가 많다고 1인당 출하액이 높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고 있

12) 說明變數 중 1인당 급여액은 從屬變數인 1인당 출하액이나 또 하나의 설명변수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 등의 人當指標와 同時性(simultaneity) 문제를 가질 수 있겠으나, 본문의 회귀분석에서 1인당 급여와 1인당 자산은 모두 투입변수로서 사용되었다.

〈表 14〉 規模階層別 生産性の 決定要因¹⁾

		종속변수 = 1인당 출하액			
		전체표본	200~299人	300~499人	500人 이상
독립변수	표본크기	902	284	238	366
상수항		-39.34 (-1.282)	213.32 (1.218)	120.52 (0.617)	45.63 (0.543)
30대재벌더미 ²⁾		28.73 (3.463)	42.24 (4.713)	19.48 (1.868)	29.63 (1.799)
ln(종업원수) ³⁾		-15.21 (-3.286)	-55.34 (-1.742)	-36.65 (-1.116)	-32.06 (-2.779)
허핀달지수 ⁴⁾		50.66 (2.638)	43.03 (2.207)	78.20 (2.838)	29.67 (0.796)
1인당유형고정자산 ⁵⁾		27.68 (7.413)	17.70 (4.819)	23.10 (4.759)	38.47 (4.990)
수출/출하액 ⁶⁾		20.31 (1.822)	20.55 (2.115)	9.37 (0.643)	30.06 (1.191)
ln(1인당급여액) ⁷⁾		78.31 (6.683)	64.07 (5.574)	63.27 (3.601)	88.79 (3.916)
R^2		0.252	0.408	0.354	0.227

註 : 1) () 안의 수치는 t 값임.

- 2) 각 사업체별로 재벌=1, 비재벌=0.
- 3) 각 사업체의 종업원수에 로그를 취한 값(사업체규모 변수).
- 4) 해당 사업체가 속한 세계분류산업의 Herfindahl 집중지수($\sum S_i^2$, $S_i = i$ 기업의 시장점유율).
- 5) 각 사업체의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 6) 각 사업체의 (수출/출하액) 비율.
- 7) 각 사업체의 1인당 급여액에 로그를 취한 값.

으며, 더구나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을 통제 한 〈表 14〉의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사업체규모와는 달리 1인당 유형고정자산 과 1인당 급여액과 같은 人當指標는 1인당 출하액과 뚜렷한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全體標本에서나 規模階層別 標本에서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産業集中度가 1인당 출하액과 有의

적인 正의 관계를 갖는 것은 독과점적인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에 비하여 사업체의 1인당 출하액이 높은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인당 출하액과 正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생산에 있어서 주어진 設備의 稼動率을 높이고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나, 그 통계적 유의성은 규모계층에 따라 낮은 경우도 발견된다.

〈表 15〉 中分類産業別 生産性的 決定要因¹⁾

	중속변수=1인당 출하액						
	31	32	34	35	36	37	38
표본크기	98	140	41	112	53	60	306
상수항	21.84 (0.285)	27.43 (1.322)	-22.43 (-0.534)	-350.85 (-1.588)	-117.18 (-2.967)	-106.09 (-1.357)	-28.55 (-2.719)
30대재벌더미	6.48 (0.384)	18.85 (3.921)	30.36 (3.066)	73.61 (1.325)	-2.58 (-0.378)	26.53 (1.506)	8.55 (2.626)
ln(종업원수)	-16.83 (-1.451)	-10.06 (-3.416)	-8.10 (-1.992)	3.90 (0.126)	7.18 (1.168)	-20.25 (1.688)	0.93 (0.576)
허핀달지수	-2.52 (-0.082)	26.29 (1.122)	41.45 (1.757)	-54.78 (-0.430)	4.78 (0.377)	261.86 (6.097)	10.88 (1.232)
1인당유형고정자산	37.10 (3.911)	10.66 (4.728)	19.49 (4.003)	60.71 (3.036)	15.06 (4.408)	14.53 (1.575)	7.35 (4.500)
수출/출하액	6.59 (0.223)	23.82 (3.653)	67.87 (1.689)	-113.73 (-1.549)	5.62 (0.473)	124.99 (2.911)	1.80 (0.435)
ln(1인당급여액)	58.62 (2.655)	30.90 (3.401)	40.66 (2.474)	195.71 (3.122)	49.67 (4.175)	99.32 (3.274)	31.82 (6.595)
R^2	0.434	0.421	0.676	0.338	0.669	0.628	0.352

註: 1) 설명변수의 정의는 〈表 14〉의 脚註 참조. () 안의 수치는 t값임.

〈表 14〉의 회귀분석은 전체표본 및 규모 계층별 하위표본에 대하여 사업체가 속한 細細分類産業의 差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이므로, 〈表 12〉와 비교할 때 분석상의 장단점이 있다. 〈表 15〉에서는 〈表 13〉의 902개 관측치를 中分類産業別 標本으로 재구성하여 〈表 14〉에서 발견되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robust’한가를 다른 각도에서 점검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¹³⁾ 〈表 15〉에서 보듯이 재벌더미, 1인당 유형

고정자산, 1인당 급여 등의 설명변수는 각각의 중분류산업내에서도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인당 출하액과 正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表 14〉의 결과가 중분류산업별로도 그대로 지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수의 경우 산업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며, 산업집중도와 수출비중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 본문 〈表 13〉에서 보듯이 33, 39산업은 재벌 사업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表 15〉의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表 16〉 財閥과 非財閥企業의 收益性 比較(1988년 上場企業 基準)¹⁾

		中分類産業 ²⁾						製造業 全體	
		31	32	34	35	36	37		38
표본크기 ³⁾		37(16)	50(12)	18(3)	81(13)	17(6)	27(9)	98(27)	338(87) ²⁾
總資本 純利益率	財閥 ⁴⁾	11.801	13.657	11.069	10.163	22.146	18.450	15.209	13.908
	非財閥 ⁴⁾	3.016	14.787	19.032	16.863	12.246	5.167	9.750	10.233
	P 값 ⁵⁾	0.0991	0.6935	0.4618	0.2859	0.0599	0.2897	0.0426	0.0702
總資本 經常 利益率	財閥	20.337	21.179	16.375	18.674	35.754	31.924	21.500	21.605
	非財閥	11.714	19.824	41.323	12.131	19.136	17.420	13.367	15.450
	P 값	0.1431	0.7944	0.0900	0.2717	0.0766	0.3422	0.0235*	0.0129*
賣出額 純利益率	財閥	2.220	3.737	3.534	3.427	8.123	4.894	3.965	3.937
	非財閥	1.217	3.253	3.578	4.728	5.668	-3.539	0.758	1.776
	P 값	0.0298*	0.6723	0.9651	0.2668	0.2296	0.2380	0.0155*	0.0123*
賣出額 經常 利益率	財閥	3.782	4.940	5.054	6.552	13.288	8.885	5.815	6.184
	非財閥	2.295	5.498	7.992	6.031	8.669	-0.614	1.283	3.302
	P 값	0.0885	0.8105	0.4121	0.7259	0.1233	0.2130	0.0006*	0.0042*

註 : 1) 91년 현재의 상장기업 중 89년 이전에 상장된 제조업부문 기업의 88년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33산업은 비재벌기업만 4개, 39산업은 비재벌기업과 재벌기업이 각각 5개, 1개로 개별산업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음. 제조업 전체는 이들 기업을 포함한 것임.

3) () 안의 수치는 재벌기업수를 나타냄.

4) '재벌'이란 88년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39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을, '비재벌'은 나머지 기업을 나타냄.

5) P 값이란 t 값에 상응하는 수치로서, *는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즉 구분된 두 표본의 평균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資料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89 한국기업재무총람』.

4. 財閥企業과 非財閥企業의 收益性 比較 : 1988년

이상과 같이 우리는 1988년 鑛工業統計를 이용하여 제조업부문내에서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의 生産性을 비교하였고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II章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재벌의 효

율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收益性에 관한 연구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1988년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비재벌기업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간단하게 고찰함으로써, 1988년이 收益性 側面에서 특수한 표본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表 16〉은 1988년의 上場企業統計를 이용하여 제조업부문에서 財閥企業과 非財閥

企業의 收益性을 비교하고 있다. 제조업 전체를 볼 때 재벌기업의 평균수익성은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네 가지 수익성지표 중 한가지를 제외하고 이러한 收益性의 隔差는 統計的으로 유의하다. 재벌과 비재벌의 수익성격차는 각 중분류산업내에서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평균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조업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中分類產業單位로 표본을 구분할 경우 개별 기업의 收益性 觀測値는 재벌이나 비재벌이나에 따라서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앞서 <表 14>, <表 15>에서 보았듯이 재벌의 생산성이 제조업전체로서는 비재벌에 비하여 높고 그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개별 중분류산업내의 격차는 유의성이 감소한 사실과, 특히 <表 12>에서 보았듯이 細細分類產業別 生産性 隔差는 U字型의 분포를 나타낸 점 등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V. 結論 및 政策示唆點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과정에서 대규모사업체와 재벌기업의 相對的 位相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고,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의 生

産性 隔差를 규명함으로써 재벌은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답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광공업통계 중 제조업부문의 投入-産出關係에 대한 要約統計値의 정리와 간단한 回歸分析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劉承旻(199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방법이 결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를 편집하고 효율성 대신 生産性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하였다.

1970~92년 기간중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확대보다는 事業體의 新設을 통한 산업저변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小規模事業體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종업원 300인 이상의 大事業體部門은 사업체수보다 事業體規模의 擴大를 통하여 성장하였다. 대사업체부문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高成長期에 이러한 상대적 비중의 하락추세가 가속되었던 반면, 低成長期에는 하락추세가 완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經濟成長이 大企業에 의한 集中現象을 심화시킨다”는 피상적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제조업내에서 30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민영화 등 企業支配關係의 변화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증가를 경험하였지만, 高成長이 財閥의 經濟力集中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대사업체부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

었다. 따라서 “經濟成長이 財閥에 의한 集中現象을 심화시킨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효율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財閥事業體와 非財閥事業體의 生産性を 비교한 결과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더욱 의미있는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事業體規模階層內에서, 그리고 동일한 細細分類產業內에서 財閥事業體와 非財閥事業體의 生産性を 분석하더라도 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5大財閥과 6~30大財閥의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後者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점은 재벌과 비재벌의 生産性 隔差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결코 아니며,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재벌사업체보다 월등하게 높은 細細分類產業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재벌사업체가 비재벌사업체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은 平均的으로 분명한 사실이지만 많은 例外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平均的인 觀測을 一般化한다든가, 이를 근거로 飛躍的인 論理나 政策을 펴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체 생산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回歸分析의 결과는 재벌사업체의 생산성 우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1인당 유형고정자산, 1인당 급여와 같은 人當 變數 및 産業集中度와 뚜렷한 正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으며, 사업체규모 자체는 생산성과 오히려 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계층별 하위표본에 대한 회귀분석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中分類 産業別 下位標本의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 상관관계의 방향이 다르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재벌사업체의 효율성에 대한 기존연구가 대부분 收益性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上場企業 財務資料를 이용하여 收益性을 살펴본 결과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격차는 평균적인 관측일 뿐이고 산업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비교에서도 산업별 차이가 컸던 점에 비추어 財閥, 非財閥의 區分이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分析結果는 어떠한 政策示唆點을 갖는가? 그동안 정부의 財閥 政策은 상당히 변화하여 왔으나 정책의 주된 관심사항이, 첫째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增加를 억제하려는 노력, 둘째 재벌의 ‘過度’하거나 ‘非效率的’인 業種多邊化를 억제하려는 노력,¹⁴⁾ 셋째 재벌의 企業所有·支配權集中을 억제하려는 노력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재벌 혹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려하는 시각은 말 그대로 경제력

14) 財閥의 業種多邊化를 규제하는 중요한 이유로 흔히들 ‘過度한,’ ‘不合理的,’ ‘非效率的인’ 다 변화라고 주장하지만 과도, 불합리, 비효율의 基準과 證據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 少數의 企業集團에게 집중되고, 특히 所有·支配權의 集中構造 때문에 결국 집중된 경제력이 소수 재벌가족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問題認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가 제조업의 경우에서 확인하였듯이 高成長期에 大企業 및 財閥의 比重은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므로 高成長이 生産集中을 치유하는 有效한 方案이 되는 개연성이 높고, 成長이 生産集中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誤謬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정책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生産集中에 대하여 개별시장 차원의 獨寡占規制 이외에는 타당한 정책이 흔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의 持續的 成長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先進國의 經驗으로 보더라도 타당한 관측이라고 본다.

한편 재벌의 업종다변화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현재 總量規制(貸出限度管理 및 出資總額制限)와 微視的 多邊化規制(業種專門化誘導施策, 進入規制 등 각종 산업정책적 규제)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大前提는 “財閥의 過度한 多邊化는 非效率的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재벌의 생산성은 비재벌에 비하여 높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체규모보다도 1인당 유형 고정자산이나 1인당 급여, 해당산업의 집중도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재벌과 비재벌의 생산성격차가 비교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에 골고루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고, 財閥들이 상당히 資本集約的이고 獨寡占的 産業에 참여하여 높은 生産性を 실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非財閥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효율성의 개념이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多邊化된 事業構造를 갖고 所有가 集中된 財閥의 效率性이 낮을 것이라는 假說에 중요한 반박을 제공하는 동시에, 産業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다변화를 效率性 次元에서 규제하려는 정책이 존재한다면, 이는 오히려 效率에 逆行할 가능성을 클 것이며, 현재의 百貨店式 多邊化規制가 效率 次元에서 의문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진전되지 않고 계열사출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貸出限度管理, 出資總額制限과 같은 總量規制는 유지될 수 있겠으나, 업종전문화유도시책을 포함한 여타의 微視的 多邊化規制는 효율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정부가 재벌의 多邊化와 所有集中에 대하여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그 목표가 生産의 效率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연 무엇을 위한 規制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이라는 사실이 非效率에 관한 한 명백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소위 效率提高를 위한 多邊化規制나 所有分散施策

등은 단순히 口號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벌정책은 다른 차원의 效率性(巨視的 次元의 資源配分效率性)이나 衡平性

등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어야만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姜信逸, 『大規模企業集團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91.

孔柄溟·金恩慈, 『大企業集團의 效率性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93.

金仁中,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形成, 行動 및 成果分析」, 韓國產業組織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 1992.

鮮于爽皓·梁元根, 『大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 誘導方案』, 產業研究院, 1991.

孫承泰,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研究報告書 93-01, 韓國開發研究院, 1993.

劉承旻, 「技術의 效率性의 決定要因과 動態的 變化」, 『韓國開發研究』, 1990 겨울, 韓國開發研究院, pp.21~46.

——, 「企業集團政策의 發展方向」, 『韓國經濟의 先進化를 위한 政策課題와 對應戰略』 제7장, 1993, 韓國開發研究院, pp. 202~238.

——·李仁燦, 「韓國製造業의 技術的 效率性 : 產業別 技術的 效率性의 推定」, 『韓國開發研究』, 1990 여름, 韓國開發研究院, pp.51~79.

鄭求鉉, 『韓國企業의 多角化戰略과 國際競爭力』, 韓國經濟研究院, 1991.

丁炳然·梁英植, 『韓國 財閥部門의 經濟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92.

趙東成, 『韓國財閥研究』, 每日經濟新聞社, 1990.

崔鍾元, 「公企業民營化의 政策效果分析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 1994 봄, 韓國開發研究院, pp.119~148.

洪賢杓, 「韓國 企業集團의 效率性分析」, 韓國產業組織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 1992.

Caves, Richard E., *Industrial Efficiency in Six Nations*, The MIT Press, 1992.

—— and David R. Barton, *Efficiency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MIT Press, 1990.

Farrell, M.J.,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20, Part 3, 1957, pp. 253~282.

Forsund, Finn R. and Lennart Hjal-

- marsson, "On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6, June 1974, pp. 141~154.
- Leibenstein, Harvey,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56, June 1966, pp. 392~415.
- , "X-Inefficiency Xist-Reply to an Xorcist," *American Economic Review*, 68, 1978, pp. 203~211.
- Siegfried, John J. and Edwin H. Wheeler, "Cost Efficiency and Monopoly Power: A Survey,"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1, Spring 1981, pp. 25~46.